

“‘쫄썩’은 운명…이젠 그와 아름답게 이별해야죠”



데뷔 이후 9년 만에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안창환. 최근 종영한 SBS ‘열혈사제’를 무대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김중원 기자 won@donga.com

? 안창환

▲1985년 6월28일생 ▲2010년 수원대 연극영화학부 졸업 ▲2011년 연극 ‘도화전발’로 데뷔 ▲2013년 연기자 장희정과 결혼 ▲연극 ‘햄릿6’ ‘농담’ ‘관객모독’ ‘프랑켄슈타인’ ‘북산노를 위한 발라드’ 등 ▲영화 ‘그랜드파터’ ‘사라진 밤’ ‘걸캅스’ 등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 ‘슬기로운 감빵생활’ ‘미스트리스’ 등

주변 반응 달라져 드라마 위력 실감
맛깔스러운 연기 태국 식당서 힛트
태닝으로 생긴 반점은 ‘영광의 상처’
아내와 아들에게 좋은 가장 되고파

“저는 쫄썩타키라타나푸라서트입니다.” 태국인으로 오해받는 게 이해될 만큼 이렇거나 자연스러울 수가 없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SBS 드라마 ‘열혈사제’ 속 자신의 이름을 읊고는 멋쩍은지 미소를 짓는다.

“쫄썩을 만난 건 운명”이라는 연기자 안창환(34)과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스포츠동아 편집국에서 만났다. 그는 “과분한 사랑이 감사하고 신기하다”며 “이제 속제는 쫄썩과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한 편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실감했다. 저는 이전과 똑같은데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 사람인지라 이 분위기를 즐기면 너무 나감까 걱정이 되는 등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하하! 어차피 지금 같은 반응은 점점 사라질 걸 알기에 마음은 편하다.”

안창환을 향한 관심은 드라마의 인기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가 맛깔스럽게 캐릭터를 소화한 힘이기도 하다. 그는 “어눌하게 한국어를 하는 게 어려워 현지인이 운영하는 태국음식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연습했다”며 “정신줄을 놓으니까 쉽더라”며 웃었다. 이어 “극중 욕하는 장면도 순수하다며 귀엽게 봐주셔서 다행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쫄썩을 표현하기 위해 무에타이 연습과 피부를 까맣게 하는 과정에도 공을 들였다. 촬영 도중 일주일째 서너차례 태닝숍에서 10분 동안 피부를 태웠다. 그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 허벅지 반점은 영광의 상처”라고 뿌듯해 했다. 검도를 11년간 해온 덕에 “몸을 쓰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극

중 니트 모자(비니)는 “더운 나라 출신이 한국에선 춥지 않을까”라며 아이디어를 냈다.

안창환은 데뷔 이후 9년간 연극무대에서 활동했다. 고교 1학년 때 친구가 TV에 나온 모습이 멋있어 그를 따라 연기 학원에 등록했다. 대학교도 연기 전공으로 진학해 꿈을 키웠다. “돌이켜보면 연기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이 없다. 촬영장에 나가면 그저 즐거웠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연기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 운이 좋아 지금까지 함께 한 동료들과 모두 합이 좋았다.”

아내인 연기자 장희정(37)과도 찰떡궁합이다. 1년6개월 동안 교제하고 2013년 결혼한 그는 연기자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아내와 작품에 대해 토론하는 일상이 즐겁다. 안창환은 “제가 살면서 여러 선택을 했는데, 후회하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결혼”이라며 “드라마 촬영 동안 4살배기 아들을 혼자 돌보느라 힘들었을 텐데 다른 말 않고 ‘고생했다’ 해줬을 때 몽클했다”고 말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애기를 나눴을 때 솔직함이 진하게 묻어나는 연기자 그리고 남편이 되길 꿈꾼다. 성격 맞으며 아버지께 잘 다가가지 못한 미안함을 대신해 내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아이가 어른이 되어도 지금처럼 지낼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한 것 같다.”

지금, 안창환이 바라는 게 있다면 시청자에게 새로운 모습을 빨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한 작품으로 얻은 이미지가 차기작으로까지 이어진다면 피해 아닌 피해이지 않나”라며 “물 흐르듯 지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어떻게 새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행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기대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열혈사제’ 때보다 반응이 좋든 나쁘든 결과는 온전히 제 몫이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제 자리에서 맡은 바 열심히 노력하겠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열혈사제 ‘쫄썩’

매니저들이 보기 불편한 ‘전참시’

〈전자적 참견 시점〉

갑을관계처럼 비쳐 갑질 논란도 매니저를 수동적 존재 취급 불만
연예인보다 주목받는 상황도 부담

MBC 예능프로그램 ‘전자적 참견 시점’이 위기에 봉착했다. 참신함 부족과 함께 출연 매니저의 퇴사를 계기로 제기되는 ‘한계론’ 등 의심의 시선이 나온다.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매니저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전자적 참견 시점’(전참시)을 향한 시청자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다. 작년 3월 방영 직후 단번에 MBC 간판 자리를 꿰차게 한 요인이었던 신선함이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이다. 방송인 이영자를 앞세운 ‘떡방’처럼 익숙한 그림을 반복한 탓이다.

스타와 매니저의 인간적 관계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의견도 많다. 연예인과 매니저를 ‘갑을관계’처럼 그리는 프로그램의 시선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연기자 이청아와 그 매니저가 대표적이다. 이청아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팔하느라 고군분투하는 매니저와 함께 출연해 ‘갑질논란’을 겪었다.

이는 현직 매니저들도 불만으로 삼는 지점이다. 적지 않은 매니저들이 “기회와 영업 등 다양한 업무를 생략한 채 매니저의



MBC ‘전자적 참견 시점’

일면만을 비춘다”며 “매니저란 직업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이도록 하는 장면을 보면 씁쓸하다”고 입을 모은다. 프로그램의 주인공 격인 매니저들마저 취지에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연예인인 일부 매니저들은 세간의 지나친 주목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이영자의 매니저 송성호 팀장, 박성광 매니저의 임송 씨 등은 자신이 연예인보다 더 주목받는 상황에 대해 여러 번 부담감을 토로했다. 최근 임송 매니저가 소속사인 SM C&C를 퇴사한 뒤 이처럼 일부 유명 매니저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 ‘전참시’의 ‘한계론’이 더욱 강하게 제기됐다.

하락세를 걷는 시청률은 이런 부정적 시선을 입증한다. 작년 12월 1일 11.1%를 달렸던 ‘전참시’는 지난달 27일 6.8%(이상 닐슨코리아)로 반 토막난 시청률을 기록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정태춘-박은옥이 들려줄 위로의 노래는?

데뷔 40주년 전국투어 벌써 매진
7월까지 9개 지역 돌며 팬들 만나

가수 정태춘과 박은옥이 다시 날아온다.

정태춘·박은옥 부부가 올해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며 전시회, 시집 발간, 새 앨범 발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2일부터 전국투어에 돌입했다. 음악에 대한 시들지 않는 열정과 관객의 힘을 과시하는 무대다.

정태춘은 지난달 30일 7년 만에 발표한 새 앨범 ‘사람들 2019’를 통해 한층 낮고 깊어진 보컬로 잔잔한 감동을 안기고 있다. ‘사람들 2019’는 1993년 발표한 8집의 수록곡 ‘사람들’의 새로운 버전이다. 당시 노랫말에 담았던 일상 속 실명의 지인들과 비정한 현실의 통계들이 현재의 이들과 상황들로 변화해 다시 선율로 흐른다.

“40년간 한국사회의 모순과 저항을 겪어내면서 인간 소외에 대한 성찰을 음악으로 담아내 온 정태춘의 음악세계를 고스란히 들을 수 있다”는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의 설명처럼 2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날



박은옥-정태춘 부부

자, 오리배’에서도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그대로 무대에서 표현된다. ‘날자, 오리배’는 정태춘의 마지막 앨범인 11집 ‘바다로 가는 시네버스’에 수록된 마지막 곡의 제목으로, 노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 위해 이번 공연 타이틀로 정했다.

정태춘·박은옥 부부에 대한 그리움은 팬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오랜만에 새 앨범을 발표하고 팬들과 만난다는 소식에 전국투어는 매진을 거듭하며 추가 공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총 7회 서울 공연은 전 좌석이 일찌감치 매진됐고, 창원과 강릉, 대전, 성남에서도 추가 무대가 펼쳐진다. 이들은 7월까지 총 9개 지역을 돌며 팬들에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와 노래를 전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3

2019년 5월 3·4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킷



누가 더 웃기게?

개그우먼 김숙(오른쪽)과 박나래가 ‘코믹 경쟁’에 나섰다. 주차장에서 만난 두 사람이 마치 프로레슬러들이 링 위에 오르기 전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처럼 포즈를 지냈다. 형광 녹색 수트와 케이프 재킷으로 각각 멋을 낸 박나래와 김숙의 과감한 패션에도 시선이 몰린다. 팬들은 두 사람을 향해 “세상에서 제일 웃긴 대결” “역시 뽕속까지 개그맨”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김숙 #박나래 #코믹빅매치

연예뉴스 HOT 3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일 개막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날 오후 7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옥토주차장에 마련된 ‘전주 돌’에서 연기자 최원영과 한예리의 사회로 막을 열었다. 개막식에 앞서 레드카펫에는 영화 ‘템프시톨’의 주인공을 맡은 걸스데이의 헤리와 영화 ‘웅알스’를 연출한 차인표 등 176명의 배우와 감독이 초청받았다. 개막작으로 ‘나폴리:작은 강들의 도시’가 상영됐으며, 영화제는 11일까지 열린다.

트와이스 ‘우아하게’ 뮤비 3억뷰 돌파



트와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데뷔곡 ‘우아하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3억 뷰를 돌파했다. 2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우아하게’는 이날 오전 7시43분경 3억 건을 넘어섰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TT’ ‘라이키’ ‘치어 업’에 이어 유튜브 조회수 3억 건 이상의 뮤직비디오를 4편 보유한 그룹이 됐다. 신곡 ‘팬시’도 공개 3일 만에 5000만 뷰 달성, 2일 현재 7200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히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할담비’ 지병수씨 종로구서 감사패



‘할담비’로 화제를 모은 지병수 씨(77)가 서울 종로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서울 종로구는 2일 “지 씨에게 지역사회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지난달 30일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병수 씨는 3월24일 방송한 KBS 1TV ‘전국노래자랑’ 종로구 편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안무와 함께 소화해 주목을 받았다. 이후 지병수 씨는 방송 출연과 광고 촬영 등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